

웨신 95 성총회 총회장 성흥경 목사 유임

신임원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부서기 장창윤 목사, 감사 지영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는 2010. 95회기 성총회를 갖고 성흥경 목사를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유임시켰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

9월 13일 오전 11시 제 95회기 정기총회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서기 김춘택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가 예레미야 1:4~10절을 봉독하고, "이 시대를 이끄는 능력"이란 제하의 말씀을 총회장 성흥경 목사가 선포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인준신학교를 위하여 부회의록서기 교영전 목사, 회계 허성인 목사, 부회계 정일량 목사 등이 특별기도를 갖고, 총무 신언창 목사의 인사 및 총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서기 김춘택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가 예레미야 1:4~10절을 봉독하고, "이 시대를 이끄는 능력"이란 제하의 말씀을 총회장 성흥경 목사가 선포했다.

2부 성찬예식에서 증경총회장 장창윤 목사의 집례로 김선호, 신동규, 정기훈, 김형수 목사가 분별위원을, 이윤우, 박민규, 송배드로, 유태준 목사 등이 분자위원으로 나섰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오후 1시30분 총회장 성흥경 목사 사회로 시작된 3부 회무처리에 서기 이일영 목사의 기도와 서기 김춘택 목사가 총대를 호명하고, 개

회가 선언되었다. 이어진 입원선거에서 현 총회장성흥경 목사를 유임시키고, 이어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유임), 서기 김춘택 목사(유임), 부서기 장창윤 목사(신임),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유임), 부회의록서기 교영전 목사(유임), 회계 허성인 목사(유임), 부회계 정일량 목사(유임), 감사 이일영 목사(유임), 전현구 목사(유임), 지영철 목사(신임), 총무 신언창 목사 등을 각각 유임과 신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95회기 성총회를 마치고 "어려운 시기에 또 다시 중책을 맡겨 주셨다며, 총회 모든 원로, 선배, 입원진, 총대 여러분 등을 존경하고 사랑하

고 말하고, 함께 손을 잡고 화합과 번화하는 총회로, 함께 나가자고 했다.

또한 성총회장은 말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웨신총회의 주역이 되며,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총회와 노회, 모든 지교회와 가정에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다.

하루 웨신총회는 여성목사 인수제도에 대해 각 노회는 가을 정기노회의 수의를 거쳐 2/3 이상의



▲총회를 마치고 축도하는 성흥경 총회장

창성을 얻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서울차임산하 연구원(장창윤 목사)과 중앙노회(김용진 목사)에서 청원한 신학교 인준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 많은 사명자를 양성해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장(순장)제58회 정총 총회장 전충현 목사 유임

신임 부총회장 지태영 목사, 박영환 장로

"교단이 지랑스럽고, 신앙색깔이 같은 교단과의 통합문제, 헌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재정문제" 등을 핵심과제로 두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총회장 전충현 목사는 지난 13일(월)~14일(화) 2일간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백암수영관에서 제58회 정기성총회를 가졌다.

총회장 전충현 목사 집례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총회장 지태영 목사의 기도와 구약 사사기 4:12~16절을 봉독한 후 총회장 전충현 목사는 "승리의 관전, 협력"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자고 했다. 이어 작전 총회장 유영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예식에서 이어 회무처리에 들어가기 입원선거에서 재추대를 받은 전충현 목사가 총회장으로 유임됐다.

총회장 전충현 목사는 인터뷰에서 첫 번째 교단을 지랑한다며 예장(순장)총회는 밖에서 보는 신앙색깔이 순수한 교단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있어서 지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안티 기독교를 보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가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교단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단 통합문제입니다. 2010. 58회 성총회에서 다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교단통합 문제와 헌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등, 이 두 가지가 핵심과제였습니다. 본 교단은 교단 통합문제를 위하

위회회를 조직하여 1년 동안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통합을 했을 때, 교단평정과 신학교에 관한 부분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가 된 다음, 내부에 가서 정식으로 통합을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신앙색깔이 같은 본 교단과 고려개혁총회와의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단통합은 본 교단으로서 처음 시도이며, 첫 번째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장총회는 여성 안수문제 있어서 아직은 개방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측(고려개혁)에서도 여성 안수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교단은 그러한 문제로 충돌할만한 사이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순장총회의 시급한 문제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웨신총회 신임원과의 기념촬영

건강하게 세워야 교단의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본 교단신학교의 제적 수가 120명인데 다 이미 채워졌습니다.

또한 본 총회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색깔이 같은 분들이 교단 가입을 원한다면 이를 위하여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제58회 신임원진은 총회장 전충현 목사(동천교회), 부총회장 지태영 목사(한빛전원교회), 박영환 장로(영안교회), 서기 강철 목사(대천교회), 회록서기

이재성 목사(신천교회), 회계 위용찬 장로(인천교회) 부회계 박종선 장로(동천교회) 시찰부장 이근우 목사(동신교회) 부부장 전배현 장로(대천교회) 선교부장: 김동민 목사(창대교회), 부부장 김은태 장로(동천교회), 교육부장 엄광일 목사(하사랑교회), 부부장 김성기 목사(영안교회) 고시부장 지태영 목사(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김인구 장로(송덕교회) 부부장 추영조 장로(신천교회), 재파국 유정현 목사(해맑음교회) 등이다.

사설

‘당신들만의 왕국’ 한국교회에 바란다

1. "당신들만의 천국"이 되어 버린 한국교회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자가 이창준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는 최근, 칸 영화제 수상작품 '밀양'이나, 전에는 '당신들의 천국' 같은 기독교 사상을 주제로 한 좋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 중에 '당신들의 천국'은 1916년 일제식민지하에 그의 고향인 장흥 낙동항 건너편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를 위한 자혜의원과 수용소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다.

소록도 백여 년 역사 가운데 "천국 만들기"에, 50 여 년간이나 환자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 초대 일본인 주정수 위장은 환자들의 몽그리진 손으로 벽돌을 구워 예배당, 병원, 목욕탕, 취사장 오락실 등 50 여동의 붉은 벽돌 건물을 지어 "천국 만들기"대사업을 강행했고 6천여 평에 진도, 우도, 대판 일대의 기암괴석, 기화요소를 옮겨와 예전동산 같은 대공원을 꾸렸다. 이렇게 소록도의 걸모습은 점점 예전동산을 닮아 가는 데, 손가락바디가 몽그리진도록 가혹한 강제노역에 못 견디던 환자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수많은 섬을 탈출해 나가기도 했다. 게다가 주정수 일본인 위장은 위대한 천국 만들기 업적을 기리는, 자기 동상을 건립하다가 환자들에게 살해된다.

해방이 되고 5.16 혁명 후에 군의관 출신, 조백현 대령이 위장으로 부임하여, 모든 분야에 개혁을 단행하고, 민주적인 운영방법으로 바꾸어갔다.

이무리 저들을 위한 낙원건설이라 해도, '당신들만의 천국'이지, 너와 나의 배이 허물어진 우리들의 천국은 아닌 것이다. 이것 또한 위장의 자기 동상만 만들기. 다른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이 벽을 허물지 못하는 한, 천국은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계시오.



제95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손에 손잡고 화합과 변화하는 총회로”



총회장
성흥경 목사
(송석교회)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
(지구촌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서기
김춘택 목사
(은천교회)



부서기
장창윤 목사
(영민천안교회)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
(한성교회)



부회의록/서기
교영전 목사
(대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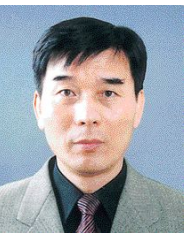
회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정일량 목사
(향기로운교회)



감사
이일영 목사
(성문교회)



감사
전현구 목사
(은누리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웨신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 02)835-2606-7, 팩스 02)835-2608

홈페이지 http://ws21.kr E-mail:ok@ws21.kr



“한국교회 큰 별” 옥한흠 목사 잠들어

사랑의교회 원로 옥한흠 목사(72세) 지난 2일 오전 43분에

옥 목사는 2006년 6월 폐암수술...8일 새벽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 받아와

평생을 제자훈련과 교회 갱신 운동에 헌신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랑의교회 옥한흠 원로목사가 2일 아침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잠들었다. 옥 목사는 지난 06년 6월 폐암수술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지난달 8일 새벽 폐렴으로 인하여 고령과 호흡곤란 증세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순 사모와 성호, 승훈, 성수 등 3남이다. 발인예배는 9월 8일(월) 오전 11시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있었으며, 장례는 한국기독교목회자, 사랑의교회 장으로 치러졌고, 장례위원장은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서정배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를 비롯해 홍절길, 하용조, 이동원, 손인영, 김삼환, 김경원, 최홍준 목사 등 8명의 목회자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 주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김옥윤



▲“한국교회 큰 별”옥한흠 목사 잠들어

여사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9시 59분 빈소를 방문 헌화를 하고 조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옥윤 여사는 조문객들과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차송을 불렀다. 이어 오정현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의 지지율로 퇴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



▲고 옥한흠 목사 운구 앞에 오정현 목사

주님 품에 잠든 옥한흠 목사는 1978년 서울 강남에 사랑의교회를 개척해 제자훈련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으며, 8·90년대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홍절길, 하용조, 이동원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주도해 왔다.

옥 목사는 또 1996년 예장합동 총회 내 목회자 갱신 그룹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를 창립해 교회의 지정 능력 회복에 힘써왔다. 또한 옥 목사는 장년을 5년 넘게 놓은 지난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위 놓고 조기은퇴하면서 세습논란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세대교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존경을 받아왔다.

감리교 미래 영성과 부흥을 위한 연합대성회 성황

2010년 한국감리교회의 미래영성과 부흥을 위한 목회자, 사모, 평신도 연합대성회가 양평 대하수도원에서 “불이재! 성령의 불을!” 주제로 지난 8월 23일(월) 오후 5시부터 28일(목) 오전 10시까지 진행돼 성황리에 마쳤다.

감리교 전국부흥단 주제로 열린 대성회에서 대표단장 임흥환 목사(남양교회)는 금년에도 감리교 성회를 열거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격동의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런 때 부흥단이 해야 할 일은 막중하다고 말하고, 1901년 개성에서 시작한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이 평양 회개운동 성령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 감리교회도 회개운동에 이은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이번 성회에 일어나길 바라며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면서 인사했다.

이어 전임 대표단장인 전태규 목사(서광교회)는 지난 제31대 감리교 부흥단 대표단장을 역임한 바 있기에 오늘 이렇게 격려사를 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여주기도원에서 시작된 집회가 양평 대하수도원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기초를 쌓아 올리게 됐다는 신



▲감리교 미래 영성과 부흥을 위한 연합대성회에서 기도하는 성도

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주문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하며 열정이 있어야 하며 겸손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격려했다.

한편 준비 위원장 김현수 목사(양양 제일감리교회)는 여름은 뜨거운소속 그바람 더 제 맛이 나는 여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회개의 눈물로 뜨거워야 하고 성

령의 불로 더 뜨겁게 타 올라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이번 성회는 다 내려놓아 온전히 비워진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집회가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23일 오후 5시 개최된 예배는 전용범 목사(상임부단장)의 사회로 임흥환 목사(대표단장)가 개회인사를, 허달원 목사가 기도를, 남양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진경 집사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이규학 감독이 말씀을 전했다. 김현수 목사 광고를, 임흥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회의 주 강사는 이규학 감독, 위형수 목사, 과주환 목사, 박상현 감독, 서정달 목사, 이민국 목사, 현익섭 목사, 임복환 목사, 김중수 목사, 김기하 목사, 이승호 목사, 김중호 목사, 최원수 장로, 심원보 목사, 임준택 목사, 전태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감리교단 목회자, 사모, 평신도 등이 풍부한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연합대성회로 성황리에 마쳤다.

합동선목총회 신임 총회장 김국경 목사 당선

상임총회장 이희준 목사 부총회장 고재윤 목사(남) 유영자 목사(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선목) 제95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7일(월) ~ 28일(화) 2일간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소재 목양교회(김국경 목사)에서 개최됐다.

“경건과 영성을 추구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정정인 목사 사회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총회장 이희준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상임총회장 김국경 목사 축



총회장 김국경 목사

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교역자 회장 이동우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되었으며, 부총회장 고재윤 목사 축도로 마쳤다. 3부 사무처리에서 김국경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어 상임총회장에 이희준 목사를 추대하고 부총회장에는 (男)고재윤 목사, (女)유영자 목사를 선출했다.

합동선목총회 95회기 임원 명단
상임총회장 이희준 목사, 총회장 김국경 목사, 부총회장 고재윤 목사(남), 유영자 목사(여), 서기 강일진 목사, (부)김대한 목사, 회록서기 김경순 목사, (부)이유



▲예배를 마치며 축도를

은 목사, 회계 윤영순 목사, (부) 최영현 목사, 감사 백병자, 김미숙 목사, 총무 이동우 목사, (부) 문희강 목사 등이다.

가말리엘신학원 개강 및 히브리어 헬라이어 출판기념 가져

가말리엘신학원(이사장 이정웅 박사)은 한광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어 2010년 9월7일 정오12시 가말리엘 신학원 개원식을 갖고 개강에 들어갔다. 아울러 히브리어 신학박사 나우섭 목사, 헬라이어 신학박사 김성기 목사 등이 히브리어 헬라이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이 행사를 위하여 가말리엘신학원 이사장 이정우 목사의 기도와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 목사는 “비밀진 중에도 히브리어 헬라이어 출판기념회에 동참해 주시고 왕래해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이사장 이정우 박사는 또한 학장 김성기 목사와 연구위원 나우섭 목사는 서울대 동문임을 밝히고, 이 일에 더욱 협력해 줄 것을

말는다고 말하고, 본원의 취지는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이해하고 또 그 진리에 기초가 되는 원어를 공부하는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한 이 목사는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많은 기도와 성원과 편달과 지도로 아낌없이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감사하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양인평 장로(범부법인) 로 고스 대표 변호사/ 한국기독교회 해중재위 위원)의 뜨거운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 일본과,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10여명의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CTS에서 자원봉사



▲가말리엘신학원 개강 및 히브리어 헬라이어 출판기념

자가 참석을 했으며, 그 외 많은 내빈들이 배석했다.

이날 한광훈 교수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보수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을 가리킨다. 이번 취지는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원래 아랍어, 히브리어, 헬리아어가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성경이 한국어에 들어와 번역을 하다보니, 사실상 해석상에 어려움이 나게들이 많았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해석하고 전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신학원연구원은 힘써 나갈 것이다.

학사보고와 운영계획을 학장 김성기 목사(신학박사)는 지금부터 2380년 전쯤 율리시시대왕이 작위하기 직전에 헬라리즘이 꽃 피었

을 때 플라톤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대학을 가리킨다. 그것을 개칭하고 정문 “귀하를 모르고 이문을 들어오지 마라”는 글귀를 써 놓았다. 우리는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고는 졸업하지 마라. 졸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몇 년이고 등록금 없이 재수강을 보장하겠다.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밤 새워 공부를 하듯이 여기 오셔서 공부하면 된다.

또한 석·박사 과정은 아랍어와 라틴어까지 지도를 할 것이다. 여려분과 여러분 주위에 목회자로서 학자로서, 추천할 수 있는 분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일반 그 총회 신학에서는 한 학기에 60-70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는데, 저희는 50%를 내려서 30만원이며, 그 중

에 성적이 뛰어난 수강생에게는 장학금을 전달 한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추천을 부탁했다.

한 교수는 또한 가말리엘신학원은 성경에 원문연구를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을 표방하는 가말리엘신학원, 학부과정은 대학원 과정, 히브리어 헬라이어 혹은 아랍어 라틴어를 중점적으로 강의해 나감, 석·박사 과정을 거쳐 목회자로 또는 교수로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했다.

가말리엘신학교 설립취지는 새 시대의 새일군을 배양하는 일이며, 그 모형이 사도바울이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생애를 바쳐 하나님과 사람에게 헌신한 인자! 복음전도자 바울을 존경한다.

현재의 물질만능과 퇴폐가 만연한 제2의 소돔과 고모리를 방불케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엄습해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눈감고 잠잠히 앉아서 모른체 할 수 없었다.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다. 스승 가말리엘이 가르친 제자 사울이 새 눈을 뜨는 곳. 그래서 바울이 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돈과 권세로 기교미정한 고위층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이는 당대의 최고의 교육자 가말리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새롭게 가말리엘신학원을 설립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하 기흥 가립교단, ☎ 02-557-7274 야간 070-7822-0691

한기부협 “한국교회 새벽을 깨우자”



▲한기부협 임원진 기념촬영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를 주제로 초교파 부흥사 연합단체인(사)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김 조 목사)가 지난 29일 동대문구 회기동 루트교회(담임 전용범 목사)에서 새벽기도 유등분부 발대식 및 감사예배를 드렸다.

전용범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최요한 목사(공동 회장)가 기도를, 박복우 목사(심무회장)가 성경봉독(에스더7:3절)하고, 김조 목사(대표회장)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김조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새벽기도다. 지금 성도의 8% 정도만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이를 50% 높이고 부흥사들이 미지림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찾아 지방으로 새벽부흥회를 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단결을 주문했다. 이어 유무하 목사(상임총무)의 광고와 김상봉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정봉기 목사(성회 본부장)사회로 2부 발대식 행사에서 송일현 목사는 취지 및 사업설명을 가졌으며, 장희열 목사(직전회장)선언문 낭독을, 김삼환, 서정배 목사가 축사를, 강종원 목사, 심원보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승현 목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와 새벽기도유등분부를 위하여 전희종 목사가 합심기도를, 새출발을 위한 축복기도를 중경대표회장 장대영 목사, 직전대표회장은 대표회장에게 새벽기도유등분부를 전달했다.

자지스티임즈 | www.JTNTV.kr JTNT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04-078373호는 신문을과당형 및 그 일련요건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18230-0032, 0034, 021 맥스021741-0031
▶팩스 : 0111468-6574, 021741-0031(팩스 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사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11,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총력기도를

교계 지도자들, 성공 기원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



오는 11월에 열릴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국민기도회(대회장 김지현 목사)가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계와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하 가운데 개최됐다.

(사)한국미래포럼(총재 장성만 목사)이 주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하기총)와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아 열린 기도회는 11월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합으로 기도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대표교무)는 설교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위가 선양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때가 왔는데, 우리는 이 때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성공과 국가번영

을 위해(김영진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황우여 의원)',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하여(김요셉 목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백도웅 목사)',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김봉태 목사)' 등이 각각 특별기도에 나섰다. 이어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민기도회(대회장 김지현 목사)가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계와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하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조용기 목사(대표교무)는 설교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위가 선양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때가 왔는데, 우리는 이 때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성공과 국가번영

을 위해(김영진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황우여 의원)',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하여(김요셉 목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백도웅 목사)',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김봉태 목사)' 등이 각각 특별기도에 나섰다. 이어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민기도회(대회장 김지현 목사)가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계와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하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조용기 목사(대표교무)는 설교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위가 선양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때가 왔는데, 우리는 이 때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대표교무)는 설교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위가 선양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때가 왔는데, 우리는 이 때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대표교무)는 설교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위가 선양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때가 왔는데, 우리는 이 때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김항식 후보를 종교편향으로 몰아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 위한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것

김항식 국무총리 내정자가 2008년 5월 15일 제40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 신분으로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시비를 거는 듯하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발탁됐다는 종교 편향적 시각은 옳지 못하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개인 사생활이기에 도하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3

월 8일 처음으로 열렸다. 1965년 2월 김종필, 김영삼, 정일형, 박현숙 의원 등 기독교 국회의원 20여명이 기도모임을 정례적으로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기독교회의원, 각계 각층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참석해 대통령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보통 목회자, 여야 국회의원,

대학총장, 장관이나 공직자, 장성, 실업인 등이 순서를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에는 김항식 대법관은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위해 김은기 공공참모총장은 한반도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했다.

2009년 7월 16일 열린 제41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김용갑 대법관이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 이명박 교

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위해', 정욱교 해군 참모총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맡았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이명석 의원(한나라당 기독교회 회장)이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 조대현(한법재판소 재판관)이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위해, 이철휘(제2작전사령관, 대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제3회 미얀마 그레이스 선교부 사역자 수련회

년 1회 사역자들의 영적훈련을 받고 있다

태국에서 미얀마 이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개척, 또는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선교부(시정호 선교사)는 지난 9월 13-17일 "온전하 사역자"(딤후3:17)라는 주제 아래 현지 사역자, 선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수련회를 태국 치앙마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사역자 수련회는 부산 부민교회(하충기 목사)와 구미남교회(천석길 목사)의 후원으로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져, 목회자들을 위한 특강, 현지 사역자 사례발표, 현지 사역자들 상호간의 교제시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등, 목회적 비전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격려했다.

사역자 수련회는 현지 사역자들이 팀으로 함께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게 하며,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목회적으로 자신의 목회를 점검하며, 미래를 향해 자신의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1년에 한 번씩 열려지는 수련회이다.

이번에 사역소개를 한 현지 사역자 중 메사이 교회 사마웅 목사는 그레이스 선교부에서 3과 5년은 숫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고민이 많

았었다고 한다.

숫자 3은 3년 안에 지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숫자 5년 5년 안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처음에는 매우 힘

들었지만, 실제로 도전했을 때, 교인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내일이면 7년째를 맞는 메사이 은혜교회는 지난 5주년에 미얀마 내지 나까웅무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워하고 있고, 7주년이 되는 내년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교인들에게 "선교를 위해 매일 1바를 드리자"라는 선교운동을 진행 중인데, 지난 6개월 동안 15,000원의 헌금이 모여졌다고 각종 헌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다음을 간증했다.

이 외에도 발제자로 나선 사역자들



▲수련회를 마치고

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기고 하고, 미얀마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도록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협력하고 사역하고자 결의했다.

2002년 치앙마이 은혜교회를 시작으로 태국과 미얀마 내지에 교회 개척사역을 하고 있는 은혜 선교부는 장기선교사 47명과 단기선교사 1가정, 목사선교사 1명 등이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28번째 교회를 개척준비 중에 있는데,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1년에 한번씩 전체 사역자 수련회를 갖고 있다.

이처럼 국가조찬기도회의 특별기도는

관계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하 사람 씩 기도 순서를 맡아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을 위한 기도는 신약성경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성경(신약성경 디모데전도 2장 2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드린 당시 기도 내용을 보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 내용을 담고 있다.(기독교 전문 참조).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또 하나는 김항식 감사위원장을 총리후보로 내정한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인애와 청렴성, 역량 등 그만한 자질을 갖추기 때문이 것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임시 범죄계 기독교 모임인 애중회 회장을 지낸 것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총리로 발탁됐다는 식의 보도는 국민들에게 종교 편향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일반 언론의 지

나친 종교 편향적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다음은 김 후보자가 제40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해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 기도문 전문.

존귀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온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하고자 국가조찬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흑암에 싸여 있던 동양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취주시고 어려운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우리 나라를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민주 국가로 세게가 주목하는 발전하는 경제 국가로 세우주셨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갈등과 대립, 탐욕과 질시, 그리고 폭력과 부조리와 모순들을 다 끌어내고 이땅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와 참의로 나라가 번영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의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의 사랑을 전하는 부강한 국가, 이룰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써 일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공직자, 종교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주님이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없는 헌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모은연 담임목사

- "반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반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게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 "네 이웃을 비뚤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비뚤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보례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유치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인디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주 일	영아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목포시 북항동 1671-15(해항주택단지)
대표전화: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061)278-0638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명 목사

담 임 : 서명명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 무 장 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k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찬양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팽택시 팽성을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권원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제목: 겸손의 능력

성경: 시편 131편 찬양: 찬송가 347장

본시는 순례자가 여호와 앞에서 신앙인으로 서 겸손을 다짐하고 마음의 평안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본시는 스스로 잡고자 했다면 수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던 그의 신앙과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최고의 자리로 바뀌면 교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겸손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우를 범치 말고 상황과 환경이 최고의 자리로 바뀌었을 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2) 제목: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시편 132편 찬양: 찬송가 488장

본시는 전방적으로 진실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시인이 열거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기억하사 과거 그에게 베푸신 약속을 그 후손이 자기와 자기 후대에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2절을 보면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아람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성전의 기둥을 세운 사람은 아람입니다. 그럼으로 시인은 아람의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다윗의 믿음이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조상이 뿌려 놓은 씨앗의 추수라는 의미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믿음의 후손들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먼 훗날 우리들의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과 믿음의 기쁨으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3) 제목: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시편 133편 찬양: 찬송가 305장

본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하신 시온에 올라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누리는 선민 이스라엘의 복락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입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이들이 연합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본시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한 오늘날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무남과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혈연으로 연합되는 형제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4) 제목: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경: 시편 134편 찬양: 찬송가 372장

본시는 성전 순례 시편 중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본시는 드디어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여호와 찬양을 선포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본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밤에 여호와 집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즉 순례자들은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직부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 막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지극적이며 묵묵히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묵묵히 충성스럽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5) 제목: 찬송하라!!

성경: 시편 135편 찬양: 찬송가 40장

본시의 주제는 ‘할렐루야’라는 시작과 끝맺음이 말해 주듯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며 백성을 구원하고 공물을 베푸는 전능하신 참 신이시 하나님 찬양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찬양하라는 명령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6) 제목: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시편 136편 찬양: 찬송가 363장

본시는 매 절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대”는 구절이 반복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창세 이래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태산같은 문제 역시 가르실 것입니다. 문제앞에 낙망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7) 제목: 원한이 기도로 바뀌면

성경: 시편 137편 찬양: 찬송가 455장

본시는 시편 150편을 통틀어 모두 세 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 하나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저주시입니다. 9절을 보면 “네 어린 것들을 바벨론에 패어치는 자는 유복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시편기자는 본문을 통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위하여 참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위하여 포로가되어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위화를 기도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원한이 기도로 바뀌는 가정마다 하늘이 찬양으로 바뀌고 구심이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 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8) 제목: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성경: 시편 138편 찬양: 찬송가 40장

본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시인이 그 구원의 은혜에 압도당하여 전심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구원의 은혜 체험은 개인적 차양에 머물지 않고 열왕들의 찬양까지 예견케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상 동안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았습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침묵하거나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9) 제목: 하나님의 섭리

성경: 시편 139편 찬양: 찬송가 410장

본시는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편재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성도 개인이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관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옵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수 없는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 유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0) 제목: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경: 시편 140편 찬양: 찬송가 342장

본시에서는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들과 그들로 인해 심한 박해를 당하는 시인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시인을 괴롭하기 위한 악인들의 움직임은 활발하고 다양하며 결사적인 반면 여기에 맞서는 시인의 모습은 오직 과거에 하나님께서 전전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기억에 의존하며 동일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노래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악행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께 피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1) 제목: 기도가 먼저입니다

성경: 시편 141편 찬양: 찬송가 483장

본시는 행악자들의 괴멸을 고대하며 행악자들의 함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또한 원수에 대한 원망 없이 시인이 신이 반성하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속히 내게 임하소서” 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우리들의 가정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넘어

지고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제목: 기도의 날개를 달고서

성경: 시편 142편 찬양: 찬송가 484장

본시는 아달람 굴속에 숨어 사울의 박해를 받아 도피하던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꺾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를 돌보아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시는 이렇게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다윗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황과 형편도 좋지 못한 지라도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추락하는 가정을 비상하게 하는 날개와 같음을 알고 기도의 날개를 달고서 비상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3) 제목: 온전한 승리

성경: 시편 143편 찬양: 찬송가 388장

본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결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절대성과 대조를 이루는 허물 많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성도들에게 참 구원과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 그만이 온전한 승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세상의 원수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원수들과 당당히 싸워 온전한 승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4) 제목: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성경: 시편 144편 찬양: 찬송가 489장

본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삼는 자들이 언제 될 축복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복입니까? 13절을 보면 “곳곳에 백성이 가득하니” 14절에 “수소는 무겁게 살았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 곳곳에 백성이 가득하며 수소는 무겁게 살아가는 축복과 기적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임용재 장로의 「영적설교의보고 캐리그마」

▶임용재 장로 소개

현재 39차 세미나 “피의 복음 3번째 예수님의 피 흘림”을 주제로 임용재 장로는 시작하고 있다. 임 장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으며, 김충기 원로 목사님의 칠판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대 부흥사였던 김충기 원로목사님께서 지난 50여년 동안 전국방방곡곡 뿐 아니라 전세계를 다니시며 전하셨던 칠판설교 중에 18년 동안을 직접 설교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칠판설교 집 삼비에 쓰자”라는 바인더를 제작하였는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마지막 목요일 날 목회자 칠판설교 세미나”를 2007년 7월 26일 시작하여 이제 39차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락처 : 010-6203-6632 임용재 장로 신문사 & JTNT 방송 광고국 010-5468-6574, 016-478-6574 070-8230-0032, 34,



강령의 논리를 정리 : 2월 7-11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 2월 7일	2. 2월 8일	3. 2월 9일	4. 2월 10일
5. 2월 11일	6. 2월 12일	7. 2월 13일	8. 2월 14일
9. 2월 15일	10. 2월 16일	11. 2월 17일	12. 2월 18일
13. 2월 19일	14. 2월 20일	15. 2월 21일	16. 2월 22일
17. 2월 23일	18. 2월 24일	19. 2월 25일	20. 2월 26일
21. 2월 27일	22. 2월 28일	23. 2월 29일	24. 2월 30일
25. 3월 1일	26. 3월 2일	27. 3월 3일	28. 3월 4일
29. 3월 5일	30. 3월 6일	31. 3월 7일	32. 3월 8일
33. 3월 9일	34. 3월 10일	35. 3월 11일	36. 3월 12일
37. 3월 13일	38. 3월 14일	39. 3월 15일	40. 3월 16일
41. 3월 17일	42. 3월 18일	43. 3월 19일	44. 3월 20일
45. 3월 21일	46. 3월 22일	47. 3월 23일	48. 3월 24일
49. 3월 25일	50. 3월 26일	51. 3월 27일	52. 3월 28일
53. 3월 29일	54. 3월 30일	55. 3월 31일	56. 4월 1일
57. 4월 2일	58. 4월 3일	59. 4월 4일	60. 4월 5일
61. 4월 6일	62. 4월 7일	63. 4월 8일	64. 4월 9일
65. 4월 10일	66. 4월 11일	67. 4월 12일	68. 4월 13일
69. 4월 14일	70. 4월 15일	71. 4월 16일	72. 4월 17일
73. 4월 18일	74. 4월 19일	75. 4월 20일	76. 4월 21일
77. 4월 22일	78. 4월 23일	79. 4월 24일	80. 4월 25일
81. 4월 26일	82. 4월 27일	83. 4월 28일	84. 4월 29일
85. 4월 30일	86. 5월 1일	87. 5월 2일	88. 5월 3일
89. 5월 4일	90. 5월 5일	91. 5월 6일	92. 5월 7일
93. 5월 8일	94. 5월 9일	95. 5월 10일	96. 5월 11일
97. 5월 12일	98. 5월 13일	99. 5월 14일	100. 5월 15일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6.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7.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8.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9.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0.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1.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2.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3.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4.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5.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6.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7.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8.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19.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0.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1.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2.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3.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4.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5.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6.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7.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8.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29.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0.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1.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2.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3.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4.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5.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6.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7.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8.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39.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0.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1.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2.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3.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4.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5.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6.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7.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8.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49.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0.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1.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2.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3.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4.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5.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6.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7.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8.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59.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60. 목회자 개인 책자(바인더) 2월 12일 발송

▶임용재 저서

1. 성경요점정리 4권(신국판) :

성경 전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1600여개 도표로 정리

2. 장절단락별 핵심가치 3권(4X배판) : 각책별 요약도표로 성경을 쉽게 기억
3. 삼비에 쓰자 : 칠판 설교집(바인더 1권) : 부흥회 자료 도표 23개 수록
4. 영적 설교의 보고 : 캐리그마 2권(4X배판) : 칠판설교 세미나 자료 모음집
5. 창출레린신사 : 강해설교집 1권 - 총 19개 설교 모음

6. 스노랜드 : 강해설교집 2권 - 총 103개 설교 모음
7.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4X배판) : 450p
8. 임용재 장로의 로마서 연구(4X배판) :
9. 캐리그마 3권(4X배판) : 마지막 교정 중

구원론

영2:1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 했는데 대표기도 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죄는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허물은 또 태어나서 모든 우상숭배 욕망 탐욕 음욕 생각으로 지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영(생령)으로 지음 받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었던 것입니다. 신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을 말합니다. 신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었습니다. 즉 범죄 함으로 인해 곧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영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

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 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입니다. 공자는 세상임금 되었던 사후(사후)에게 속한 자이며 그래서 그게 이 세상 풍속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 하는 자들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 때 문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더니...

선악과 먹은 이후로 아담은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은 사탄의 독, 뱀의 독이 것입니다.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고(뱀의 독은 하나님과 위수 된 사탄의 독이다). 육체는 아담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혼에게 보냈고 혼이

예수님의 보혈 VI

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어 있었습니다. 유전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어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거기다 또 태어나서 지은 모든 우상숭배와 욕망 탐욕 음욕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허물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우상숭배 욕망 탐욕 음욕 생각으로 지은 것을 허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와 허물가운데 죽어있어 있었느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풍속을 좇았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은 어릴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아니라 세상풍속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유교사상의 창시자인 공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공자에게 배워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후(사후)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때는 사후(사후)가 이 세상임금 이었고

육체에게 보내서 육체가 움직였는데 뱀(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이 죽은 것입니다. 요일1:5 이때부터는 혼이 뱀의 독인 육체의 지식을 받게 된 것이요 육이 요구하는 지식을 받아서 혼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자도 자기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또는 어느 누구의 죄와 허물을 사할 수가 없습니다. 뱀의 독이 있는 영이 죽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피는 본인은 물론 어느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와 허물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입니다. 아담은 죄를 한번 지었습니다. 그 한번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임마누엘교회



한·몽 수교 20주년, 한국일리미의 문화공연“의료봉사”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한·몽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문화예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몽골 부총리 N. ALTANKHUYAG의 공식 초청으로 몽골 소외지역의 의료봉사와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자 9월 6일부터 11일(5박6일)동안 일정을 가졌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의료봉사, 전통문화공연, 친화경비누공예전수, 장애인학교탐방등으로 이뤄졌다.

치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의 의료진들과 의료봉사단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들은 울라바타르 성지하이라구 3병원에서 3일간 약400명을 진료 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검사등 기본적인 검사를 거친 사람들이 의료진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고, 3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병원치료를 한번도 받지 못한 빈곤 계층의 몽골인들은 한국인의사의 손길을 기대하며 1~2시간이 넘게 뜨거운 햇살 아래 한바탕 웃음으로 줄을 서가며 기다렸으며, 의료진들은 정성을 다하여 하행하행 진료하였다. 기다리는 몽골인들을 보며 한국 봉사팀은 점심도 몽골만두로 대신해가며 전심을 다해 하영훈 하영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몽 수교 20주년 기념촬영

진료를 하였다.

또한 8일에는 울라바타르시에서 1시간 떨어진 종모드비이오소의 솔롱고 마을에서는 약70명이 치료를 받았다. 전통문화공연으로는 7일 울라바타르대학 한국어관에서 울라바타르대학 한국어과 학생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무용인 부채춤, 장구춤을 선보였다. 각양각색의 설명과 의미들을 설명해주어, 한국의 전통공연을 이해하며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8일 솔롱고 마을에서는 한국의 전통공연을 처음 보는 마을주민들에게 부채춤, 장구춤, 특송과 함께 수요예배를 드린 후 마을주민들이 한국전통 의상을 입는 체험을 하자는 제안이 즉석에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사진

을 찍는 시간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9일 울라바타르 문화회관에서는 1800여을 가득채운 몽골시민들이 한국의 부채춤, 장구춤, 한국무용, 장애인성악가 무대와 몽골장애인들의 독창, 악기연주 등 함께 교류하는 무대에 큰 박수와 호응을 보내주어, 문화를 넘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몽골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짚, 그림 등이 전시되어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5팀에게 상금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에서 빈국에 해당되는 몽골의 일지리친총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친화경비누만들기를 전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9일날 몽골의 민주당 당사에



▲의료진료하고 있는 봉사팀

서 실시된 비누만들기에는 성지하이라구 6동, 12동, 14동 장애인 시설 담당자 참석하여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

10일 몽골정부청사에서 부총리의 면담시간을 가졌으며, 의료진, 비누공예가, 예술단장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부총리는 많은 도움을 준 한국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30명의 민간자립단원"작은 자 하나에게 하것이 곧 내게 하것이"라는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왔으며, 더욱이 양국간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더욱 밀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며 11일 귀국했다.

연대 총동문회 전국 사명자기도 대성회 열어

「국가의 위기 앞에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삼상7장)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



한국교회를 위한 영성 회복을 위한 전국 사명자 대 성회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33 성산수양관에서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총동문회(총동문회장 유호균 목사) 주관으로 2010년 8월 30일(월)하루 집회를 가졌다.

안남 기도 대성회 강사는 엄신형, 이경은, 피종진 목사 등이 나섰으며, 첫 시간 김창양 목사(준비위원장) 사 회로 진행된 예배에 엄주갑 목사(회계)가 기도를, 총동문회장 유호균 목사가 환영사를, 설교 엄신형 목사, 합

심기도 인도는 이금옥 목사(부회장)가 진행했다.

이날 유호균 목사(총동문회장)는 환영사에서"어느 시대나 그 나름대로의 위기는 있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위기는 위험한 과이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 경제, 도덕과 윤리의 부재, 계층 간 박탈 및 편 가르기, "히니면 말고"식의 무분별 반향, 이단종교의 득세, 국가 안보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다면서 역대하 7장11-16절을 인용한 후 오늘 하루부터라도 마음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가정

과 직장을, 단입부는 북한 동포들과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특별히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국군장병들과 치안을 위해 애쓰는 경찰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을,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한국



▲연대 총동문회 전국 사명자 기도 대성회 열어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JTN방송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3027-3712

대한예수교 세계명성교회

WORLD MYUNG SU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성교회 신앙의 지표 :
1.영혼구원 1.전도복발 1.상전전축 1.세계선교 1.구제봉사



담임 최남복 목사
Pastor Rev. Choi Nam Bo

- 교육전도사 : 이재훈
- 반주(피아노) : 사친아 / 반주(올가브) : 장지희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화요 기도	화요일 오전 10시
주일예배	오후 3시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오후 2시
새벽예배	매일 오전 5시	학원회	토요일 오후 2시
			주일 오전 11시
금요 기도	금요일 오후 9시	청년회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전 11시

주소:131-103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35-3
제2성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평로207-1
홈페이지 : http://yeajeon.onnam.com
☎ 교회 : 02)2248-0955 031)575-0691 FAX 02)2248-0955
사택 : 02)436-4579 H.P 010-5346-0955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현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대한예수교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궏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목회자칼럼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회법률(教會法律)

(목회자가 익을한 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회의 법에 관하여 (회의의제원칙들)

5). 회의 불계속의 원칙.
회의 중에 상정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 다루지 아니하면, 다음 회기로 그 안건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즉 상정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만 유효하고, 그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건자체가 소멸된다. 이것을 회의 불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단 : 다음회기에 다루자고 결의한 안건은 그 자체가 결의이므로 유안안이 되어, 다음 회기에 최우선으로 안건이 살아서 상정하게 된다. 즉 유안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가 개최되면 다른 안건에 우선하며 제일 먼저 심의해야 한다.

6). 사법(후결의) 우선의 원칙.

동일 회기 내에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의제를 두 번 심의할 수 없지만, (예외·재률동의) 회기가 다를 때는 전 회기의 의제를 다시 심의제로 상정하여 전 회기의 결정과 상반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는 회기 독립의 원칙에 의거, 전 회기의 결정에 후 회기의 회의가 구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전 회기의 결정과 후회기의 결정이 상반될 때는, 신 결의 우선의 원칙에 의거 전 결의를 번복하거나, 무효화 결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후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칙, 예컨대 구사건 우선의 원칙, 일률일답 금지의 원칙, 토론 자유의 원칙, 질서유지의 원칙, 절차준수의 원칙 등이 있다. 여기서서는 설명(說明)을 생략(省略)한다.

10. 헌법개정(憲法改正).

1). (고 려).
제 22장 헌법개정. 제 109조 헌법개정(憲法改正) 방법.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方法)대로 한다.

제1항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義)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며, 각 노회서기는 투표(投票)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제출할 것이며,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實行)하게 한다.

제2항 신조 즉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12시조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垂義)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可票)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용(採用)하여야 개정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投票)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제출한다.

제3항 총회는 신조를 개정하지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으로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여, 다음 총회 때에 보고하게 하되, 그 위원은 한 노회에서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지는 헌의(獻議)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1. 2. 항에 준한다.

2). (통 합).

제 16장 헌법개정(憲法改正).
제100조. 정치, 권징, 예배모범의 개정. 교회정치, 권징,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총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垂義)된 개정안(改正案)의 가부(可否) 투표수를 종합(綜合)

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總會長)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結果)를 수합(收合)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公告)하여 실시한다.

제101조 교리(敎理)의 개정.
교리(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總會)는 총석회원(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改正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垂義)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老會)는 수의(垂義)된 안건의 투표(投票) 총수와 가부(可否) 투표수를 종합(綜合)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2조 헌법개정 위원(憲法改正委員).
총회는 헌법(憲法)을 수정 또는 개정(改正)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위원 15인 이상(以上)을 선정하여 개정안(改正案)을 작성케 하되, 목사(牧師)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敎理)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研究)케 하후 다음 총회에 보고(報告)한다.

다음호 계속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담임, 본지 고문

(재)기독교 선교 햇불재단 2학기 개강



▲(재)기독교 선교 대전 햇불회 2학기 개강

재단법인 기독교 선교 햇불재단, 대전 햇불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2학기 개강을 예배를 드렸다.

이날 대전 햇불재단은 2학기 개강에서 대전광역시 동부경찰서 총경 정기룡 서장이 첫 강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서장은 "맑고 깊은 사람"이란 주제로 특강을 맡아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어 재단법인 기독교 선교 대전 햇불재단에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민생치안,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동부경찰서 정기룡 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멸망해가는 북한의 김정일 다루기

북은 지난 6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현행 당규 상,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와 차기 당 대회 중간에 개최하게 돼 있는 3차 노동당대표자회의'를 1966년 2차 당대표자회의의 후 44년 만인 9월 상순에 개최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세상의 이목을 끈 바가 있다.

9월 상순에 당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북이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21일 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오는 28일 평양에서 3차 당 대표자회의'를 개최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 보냈다.

北의 현행 당 규약(1980.10.13)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라고 규정해 놓고 21조에 매 5년마다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소집케 돼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단서를 달아 놓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소위 당대표자회의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의를 보전 한다.'고 규정(30조)해 놓고 있다.

그런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헌법이다.'이라고 전문에 명시 한 소위 북 헌법(2009.4.9)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11조)'고 노동당 1당 독재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100조)'라고 헌법에 규정하여 김정일 1인 지배체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2000년 8월 5일 당시 박지원 문광부장관(현 민주당원 내대표)에 코를 깨어 평양을 방문, 8월 12일 김정일 앞에 끌려가

북 기자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최철남과 南 하계례 신문 최학래가 서명한 '남북어류합의서'라는 항북문서를 바친 남한신문방송통신사사장단 48명 앞에서 김정일이 흐기 있게 내 뱉은 당 규약개정 관련발언을 상기해 보자.

김정일은 남측 언론사사장단을 상대로 '노동당 규약도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규약을 고쳤으나 45년도에 만들어진 강령은 안 바꿨다'면서 전향비도적화 통일을 규정해 놓은 당 강령은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 규약조차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한 김정일 발언을 뒤집어 보면, 속된 표현으로 김정일 앞에서는 '당 강령이고 나뉘이고' 깨닫게 없으며, 이에 헌법 따위는 아랫것들이 적당히 지키면 되는 것일 뿐 김정일과는 무관한 층이 쪽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선출토록 못 박혀있으며, 선거법 제3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출토록 되어 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연기할 경우일지라도 '대통령 및대통령'가 아니라 선거위원장과 협의토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을 위시한 '法대로' 할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헌법이고 당규약이고 구에 없이 김정일 '멋대로'하고 있는 무법천지 북괴집단을 확실히, 그것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기?

모든 것을 '멋대로'해도 되는 1인 폭압살인독재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조차도 지켜야 하는 빨강이들의 철칙은 '공산=주체'혁명 이론과 당 강령 그리고 투쟁지침'으로서 이를 빨강이들의 삼불포기(三不拋棄)원칙이라고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역설적이지만 거기에 복과를 이길 해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이 삼불포기원칙에 매달리듯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과 확립된 국제규범과 원칙에 충실하기만 하면, 北은 현실적 제약과 자체적 필요에 쫓겨 한 발자이라도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이 대북관계에서 실익은 전술이나 한변주의를 탈피하여 원칙을 고수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북이 타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을 상대로 한 원칙이란 대한민국이 엄격한 법치를 확립한 토대위에서 상호주의와 당국자우선 두 가지면 족하며, 북에게 국제법이나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라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신의와 성실의무'에 충실하도록 책적으로 가르치고 당국으로 이끌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3.26 천안함사태피괴적침투참사에 대한 시위사과 및 책임자 처벌과 금강산관광객 방왕주주부 저격살해 현장조사의 수용과 금강산지역 남측 재산과 시설의 원상회복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포기과 국제사회를 향한 문호의 개방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복침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6.25남침에 대한 시위사과와 재 납치포기 확약과 그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합의와 실천이 없는 대북 협력과 지원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된다. 여하튼 무의탁노인과 결식아동을 외면하고'남는 쌀타령이나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버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국으로 삼기려 하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대남적화 전략을 분쇄하고 연방제적화통일 음모를 저지하는 길은 '원칙의 창'과 '기본의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성령의 양식 '주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 계신 곳에는 재물이 있노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현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대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대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이정민 목사(Minister)



"모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역부할 열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세생명 어린이집(02)464-3107

대한예수교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원로: 김영환 장로
장로: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 다니엘교회

표어: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주일오전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찬양부	토요일 오후5:00	4층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4층 나사렛성전
생생대학	금요일 오전10:00, 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생 예배	생 가정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선 목사 전화 02)430-9107, 02)3402-2714

각 교단 신임총회장은 참된 소신과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짐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끝나

지난 9월 6일~10일 제95회기 예정 통합총회가 경남 창원 소재 양곡교회(지용수 목사)에서부터 시작되어 총회장 김경서 목사·부총회장 박위근 목사가 선출됐다.

이어 기장총회는 강원도 원주시 영강교회에서 95회 총회를 갖고 총회장에 김종성 목사, 부총회장 유정성 목사, 박무용 장로를 선출했다. 백석총회는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노루길 목사를, 부총회장에 유중현 목사를 선출했

다. 그밖에 많은 교단들은 시립총회장의 소신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며, 교단발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시립총회장과 임원들의 행보에 귀추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는 2013년 WCC 부산총회에 대해서도 각 교단마다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기장은 준비위원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WCC 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반면 대신측은 WCC 부산총회의 반대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또한 합신측 역시 현의안으로 올라온 'WCC 총회에 대한 입장 표명'의 건을 통과시키며, WCC 부산총회에 대한 교단의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한 예정 대신측도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컨벤션플로라 호텔에서 제45회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박재열 목사, 부총회장에 강경원 목사를

각각 선출했으며, 고신측은 제60회 정총을 27일 오후3시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해 유현주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부총회장에 정근두 목사가 당선됐다.



▲(좌)통합 김경서 총회장 (중)백석 노루길 총회장 (우)대신 박재열 총회장

예정중앙총회 제95회기 정총에서 총회장 백기환 목사 유임

총대 300여명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은 백기환 목사 추대

교단 발전을 전폭 지지하는 300여명의 열의로 제95회기 중앙총회를 확실하게 이끌어갈 총회장으로 인정받



중앙총회 백기환 목사

기에 백기환 목사를 재추대하고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임마누엘정신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정(중앙)총회 총회장 백기환 목사(사진)의 제 95회 정기총회가 매년 그랬듯이 금년에도 타 교단에 비해 앞서가는 총회로서 지난 9월 2일 용인시에 소재한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교단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룩기를 염원하는 총대들의 기원에 따라 총회장 선출을 위해 선정된 7인의 전횡위원회 95회기 총회장 후보로 백기환 목사를 추대, 비밀투표를 통하여 300여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백기환 목사가 총회장에 유임되었다. '임마누엘 정신 확립의 해'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서기 이강덕

목사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정기총회 및 임마누엘 정신 확립의 해를 위하여, 고금용 목사 △본 교단 직영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이진호 목사 △총회 산하 지 교회와 인준신학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교단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룩기를 염원하는 총대들의 기원에 따라 총회장 선출을 위해 선정된 7인의 전횡위원회 95회기 총회장 후보로 백기환 목사를 추대, 비밀투표를 통하여 300여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백기환 목사가 총회장에 유임되었다. '임마누엘 정신 확립의 해'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서기 이강덕

이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 받은 자의 각오"라는 제하의 말씀을

총회장 백기환 목사가 선포했다. 백 총회장은 또한 "사명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 기필코 완수해야 하는 책임감과 이를 위한 자기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따르는 책임과 회심에 대해 위망없이, 불평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음으로 해야 하며 총회일도 노회일도, 교회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위망없이, 불평없이, 기쁨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헌신할 것을 적시했다.

이어 성찬예식이 진행되었으며,

총회장 백기환 목사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각부 및 기관 보고 안건토의가 있었다. 이날 주요 사항들이 결정되었으며, 새로운 임원 선출은 총회장 자택으로 선출할 것을 위임하고, 총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85개 노회장과 총회임원, 인준신학 학장 등으로 구성된 최고 전권위원회에 위임시켰으며 폐회했다.

이날 총회장 백기환 목사는 "앞으로 교단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더욱 힘을 것이며, 교회마다 거진하게 정착해가는 모습에 집중하

고, 총회와 신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한 일에도 적극 협력 하교" "교단의 질적, 양적성장을 위한 장, 단기 정책을 수립 85개 노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제95회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백기환 목사, 행정부총회장 최영순 목사, 대외부총회장 고금용 목사, 재무부총회장 김위배 목사, 재정부총회장 유금수 목사 ▲서기 이강덕 목사, (부)권정숙 목사 ▲회계 이복순 목사, (부)김애자 목사 ▲회의록서기 유광선 목사, (부)유정재 목사 ▲총무 심우영 목사, (부)김동진 목사 등이다.



▲중앙총회광경

예감 21차 정기총회, 신임감독 손선영 목사 당선

예수교대 한길교회(김창기 감독)는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부석중앙교회에서 제21차 성총회를 갖고 무기명 투표에서 신임감독에 손선영 목사를 당선시켰다.



예감총회 손선영 감독

이날 조경형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 성찬식을 먼저 가진 뒤 감독 김창기 목사는 "읽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권오덕 감독의 축사가 있었고, 위로목사회 회장 신시록 감독에게 공로패를 증정하 후

신시록 감독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무기명 투표결과 총대 61명 중 반대 4표, 찬성 58표 93.4%의 지지를 받아 손선영 목사(부천 기념교회)가 신임감독에 당선되었으며, 예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증을 전달했다.

신임 손선영 감독은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 감독의 자택으로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등을 임명하고, 이어 신학교 이사장 선출에서 무기명 투표결과 김학남 목사가 당선되었다. 또한 이날 위로 신시록 감독을 대학원장에 추대하고 임명했다.

이날 손선영 신임감독은 세계 선교와 한국선교에 밝을 맞추어

영향력 있는 감리교단으로서 면목을 갖추어 나아가자 것이요, 예감 50주년이 되는 해에 행사를 잘 준비하여 명실공히 예수교대한길 회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교단으로

로서의 계획을 새워놓고 있다. 교단 내에 신학교는 본교와 부교가 있는데, 이들 신학교를 힘 있는 신학교로 성장 발전시키고, 학도들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힘써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손선영 감독은 맑은 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감 21차 총회회의장

예정(합신) 제95회 정총, 신임총회장 장상래 목사 당선

신임 부총회장에 권태진 목사, 정문영 장로 당선

“영적 각성된 교단으로 이 시대에 책임 다하자”

대하예수교장로회(합신) 제95회 정기총회가 9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소재 고



총회장 장상래 목사

덕중앙교회(임석영 목사)에서 개막되어 제95회기 시립총회장에 장상래 목사가 당선되었다.

전국 21개 노회 총대 181명과 안목회원 등 20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개회예배는 직전총회장 임석영 목사의 사회로 직전장로부총회장 성복근 장로의 기도, 직전 서기 전 현 목사의 성경봉독, 고덕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 임석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임석영 목사는 '빛진 자의 마음'(로 1:14-18)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임 목사는 "복음이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음을 기뻐하는 바울과 같이 천하만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길 기원하길 원하는 합신 교단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행하는 바울의 방편대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은 세상의 기준을 좇아가지 않으며 오직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합신 교단 모두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임석영 목사의 인도로 성찬식이 진행되었고 증경총회장 김우석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날 절차에 따라 개회가 선언되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제95회기 시립 총회장투표에서 171표 중 161표를 얻어 압승을 거둔 장상래 목사(동서울노회 은평교회)가 당선됐다.

장상래 시립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95회 총회는 교단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총회의 나아갈 길과 비전을 제시하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임임은 부총회장 권태진 목사(경기중노회 군포제일교회), 정문영 장로(서서울노회 큰빛교회), 서기 전 현 목사(북서울노회 화평교회), (부)박성호 목사(부산노회 푸른초장교회), 회록서기 허성철 목사(인천노회 서문교회), (부)김태준 목사(경기서노회 중동교회), 회계 김위진 장로(남서울노회 대림교회), (부)김위철 장로(중서울노회 뽕밭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합신총회는 레노바레(관상기도)에 관한 건 '가정교회에 관한 건' '2013년 열리는 세계 WCC 대회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소속 목사의 영입에 관한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합신 총회광경

개혁총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되는 총회" 다짐

예정개혁 제95회 정기총회 개최...총회장에 하영수 목사 선출

대하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는 지난 13~14일 장미중앙교회(박용기 목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4)에서 제9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총회장에 하영수 목사(화금교회)를 선출했다.

총회장 정병희 목사(동신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하영수 목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전횡위원회에 의해 총회장에 추대됐으며, 본 회의에서 총대들의 결의를 거쳐 제18대 총회장에 선출됐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되는 총회'(담전 3:15)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총회산하 전국 노회에서 목사 및 장로 총대들이 참석했으며 개회예배와 성찬예식, 회무처리 등 일정으로 2일간 진행됐다. 총회는 새 회기에는 해외선교 활동에 보다 많은 역량을 기울이기로 하고 주무 상비부서인 전도부(부장 김필화 목사) 예산을 작년 대비 10배로 늘렸다.

예정개혁총회는 그동안 교단 직영 신문사인 (주)한국크리스천신문(발행인 김창영 장로)을 통해 필리핀, 일본, 호주, 중국 등 4개국에서 현지인 목회자 및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회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가져왔으며, 이번 95회기부터는 인도를 추가해 오는 9월 30일부터 16일간 뉴델리 및 북인도 지역의 데라둔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성경회를 개최한다. 또

한 매년 기독교유적지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동안 구약과정(이집트-이스라엘), 신약과정(터키-그리스)을 마쳤으며, 올 5월에는 중세종교개혁사 과정으로 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독일 등 4개국을 다녀왔다.

한편 개혁총회는 지난 2월 16일에 시작한 총회 회관(호크마하우스)이 7개월 만에 완공돼, 총회물체납입 9월 14일 오후 2시 준공식을 갖기도 했다. 개혁총회회관인 '호크마하우스'는 '지혜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대지면적 1078평에 건물면적 53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총회장 하영수 목사

이 건물에는 총회본부 외에서 선교사 숙소, 한국크리스천신문사, 대소 세미나실, 체력다련실, 찜질방, 도서관, 음악감상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하영수(화금교회) ▲부총회장=박영철 목사(군곡교회), 임종용 장로(성동교회) ▲서기=이성만 목사(수천연약교회) ▲부서기=오부영 목사(오병이어교회) ▲회의록서기=여귀훈 목사(군산교회) ▲부회의록서기=문진원 목사(가장중앙교회) ▲회계=조연화 장로(말씀교회) ▲부회계=조규희 장로(동신교회) ▲감사=김창영 장로(장미중앙교회), 김인수 장로(광의교회) ▲총무=박형성 목사(은석교회).



▲개혁총회광경

전기총, 진통 끝에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추대

232 시군 기독교연합회를 하나로 출범한 전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전기총) 초대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사무총장에 이상현 사관을 선출했다.

전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전기총)창립총회(속회)가 9월 17일 서울 태평로 서울프레스클럽에서 속회되어 초대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중흥교회 /하기총직전대표회장)가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이상현 구세군 사관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결정되었다.

전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중흥교회)는 "앞으로 기쁨 유영 문화 선교 등 21개 위원회와 인프라를



▲전기총, 진통 끝에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추대

구축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하기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등과 협력해 하나님 나

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새 연합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칼럼

인지, 관심, 긍정, 칭찬하라

심리학에는 양동이 이론(bucket theory)이 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커다란 양동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양동이에 물이 많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비어갈수록 불행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당신이라면 마음의 양동이에 어떤 물을 채우고 싶은가? 누구라도 깨끗한 물을 원할 것

이다. 그 깨끗한 물이란 어떤 물일까?

우리가 양동이에 채울 수 있는 깨끗한 물은 네 종류다. 첫째는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인지'의 물이고, 둘째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물, 셋째는 '긍정'의 물이며, 넷째는 '칭찬'의 물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길 원하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칭찬 받길 원한다.

이 양동이 이론에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다. 물을 채우고 싶은 생각이 강하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양동이를 채우는 데 필수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에릭 바시의 이론을 적용하면 "물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양동이를 채워라.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물을 받을 것이다"가 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인과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이다. 그러니 인정하고 관심을 보여라.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 피드백을 전하며 칭찬하라. 상대의 양동이를 가득 채워 물이 넘쳐흐를 당신의 양동이까지 채울 것이다.

예장(고려)총회 제60회 현 총회장 홍록두 목사 유임

부총회장 박창환 목사, 총무 강구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놀로리 268-18(고려신학교아카데미)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리라"(계시록17:14)절 말씀을 주제로 28일(화)~ 30일(목)까지 제60회 성총회를 개최했다.

28일 저녁 7시30분 총회장 홍록두 목사 사회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이현상 목사 기도, 회



총회장 홍록두 목사

록서기 김원구 목사가 성경봉독, 고려신학교 신학원차양태의 찬양에 이어 총회장 홍록두 목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리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마쳤다.

2부 사무처리와 3부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연이어 사무처리가 진행됐다. 첫날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현 총회장 홍록두 목사(서마나교회)가 유임됐다. 부총회장 박창환 목사(일신교회), 총무 강구원 목사(감보리교회), 서기 이현상 목사(경향교회), 부서기 이성용 목사(수원시영교회), 회록서



▲예장고려총회 60회총회 광경

기 김원구 목사(산성교회), 부회록서기 허호성 목사(광천교회), 회계 이영훈 장로(경향교회), 부회계 신태성 장로(석천교회) 등이다.

둘째날 9월29일(수)새벽기도에 이어 오전 9시30분 석원대 목사(경향교회 위로)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됐다.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로 결의' 기도회 가져



▲(좌)방지일 목사 (우)신신목 목사

전 인류의 화합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쟁과 테러가 없는 지구촌을 만들자는 취지 아래 제29회 '세계평화의 날 기도회'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주최로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코리나호텔에서 개최됐다.

교계지도자 15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을 기도했다. 이날 메시지는 "모든 인류는 평화를 기원하고 있지만 각종 테러와 전쟁을 일삼고 갈등을 조정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 뒤 김정일 독재정권의 천안함 사건, 친북세력들의 인식 전환, 테러 대처와 전쟁 종식,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배태영(경희대 전 부총장)목사의 대표기도가 있었으며 이어 방지일(영등포교회 위로)목사는 '자신이 주의 처소가 되게 하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방 목사는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삶이 바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기에 자신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며 "평화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참석자들은

'세계 곳곳의 전쟁과 테러 종식', '나라안정과 국류통일', '북한동포해방과 평화통일', '한국교회 영적 성장과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정재규 목사는 평화의 날 메시지를 낭독하고, 서기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제16차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당시 의장이었던 조영식 박사에 의해 발의되었다. 당시 조 박사는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세계평화의 전담기관인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도록 건의했었다. 그해 11월 열린 제36차 유엔총회는 총장 회의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지킬 것을 결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1982년부터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의 날 기도회를 올해로 28년 동안 개최해 오고 있다.

소강석목사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2010 불붙는다"

"2011 목회 다이어뱅크, 중·소형 목회자들 큰 도전, 꿈, 희망 불러 넣어 줄 것."

새예레교회와 소강석 목사는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2010 큰 행사를 계획하고 개척교회에는 큰 부흥의 희망을, 중형교회에는 도약의 동기를 불어넣는 2011 목회 아이디어뱅크가 열리게 목회자들에게 큰 기대가 된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새예레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는 10월 18일~ 20일까지 담임목회자, 선교사, 부교역자, 사모를 대상으로 열리는 생명나무목회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컨퍼런스에 23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새예레교회와 더불어 함께 울고 웃으며 생명나무목회에 대한 가능성과 비전을 나누어 왔다. 마지막 날까지 예배당을 가득 채운 목회자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은 새예레교회는 지난해 보다 더 성숙하고 앞장 내용으로 준비하여, 2011년 목회에 변화와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고 하고 있다.

이번 생명나무 목회컨퍼런스

2010은 개척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모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고, 기존교회의 조직이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회에 생명력과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목회자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새예레교회는 지난해 중국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성공리에 마쳤으며, 맨션, 맨션, 맨션에 시작해 용인 죽전 지역에 1만여 명의 성전을 건축하고 2만 5천여 명의 성도로 부흥을 이룬, 소 목사의 목회 전략과 비전을 공개한다.

주강사로 나선 소 목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 발전해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새예레교회 생명나무 목회자 2010 컨퍼런스(사진은 60주년 평화대성회)

하기 위해서는 불순종과 악한 판단의 선악과를 추구하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예레교회와 소 목사는 "컨퍼런스 2011에 많은 목회자들이 큰 도전과 꿈을 갖고 새로운 목회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기 바란다"며, 성령 충만으로 가슴에 큰 부흥의 열쇠를 품고 돌아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기성교단 전국 목회자 전도·교회성장 세미나 열려

전국에서 2000여명 참석, 기도열기·전도열정 '후끈'

전국 교회 목회자와 사모 2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전도와 부흥에 매진할 것과 성결교회의 부흥, 100만 성결가족 달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원팔연 총회장의 제안으로 열린 2010년 전국 목회자 전도·교회성장 세미나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원주 치악산 명성수영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2000여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수양과 분규와 식단 등을 가득 채운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합성 속에 전도 강사들의 세미나, 저녁 부흥집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원팔연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권중호 장로의 사회와 회계 이일재 장로의 기도, 부총회장 주남석 목사의 설교, 유석성 서울시대 총장의 100주년 기념사업 보고, 교단 총무 송윤기 목사의 환영사, 전 총회장 이만기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이번 성결교단 전도세미나는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와 임제택 목사(대전영남교회)

가 전도의 중요성과 파워전도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전도세미나를 통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한 목회자 부부들은 저녁 부흥집회를 통해 성결교회의 성장을 위해 헌신할 마음을 다졌다.

특히 총회장 원팔연 목사는 바울교회 성장이야기를 내용으로 '성결교회는 성장해야 하며 이 성장을 위해 목회자들이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중 목사(아사동산교회)는 또한 "성령 받으며 전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직접 찾아가서 전도해야 결국 부흥한다"고 밝혔으며 소강석 목사(새예레교회)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의 최선이 만날 때 이뤄지며 (목회자들이) 부흥을 향한 깊은 꿈을 꾸고 교회 이미지 개선과 전도전략, 양육 등 시스템이 뒤따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성전국 목회자 전도대회

성결교단 이번 세미나는 주성민 목사(익산 금리교회), 일명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 둘째날 저녁 김지연 목사(왕성교회), 첫째날에는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새벽사역에는 본 교단 전 총회장 이윤규 목사, 이정익 목사 등이 설교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총회 임원회는 전도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논의하고 지방별 전도대회를 열어 전도 열기를 고취시킬 것과 함께 개 교회별 전도활동을 전국 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칼럼

들통난 거짓말

고등학교 몇 사람이 어느 주일날 교외로 나가 신나게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이 피를 냈습니다.

"야, 우리 하루 더 놀자. 그리고 위험한 결석하면 안 되니까,

이따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 주일날 우리가 교외로 놀라졌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났다고 하는 거야. 더욱이 타이어를 고칠 가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애쓰다가 가까스로 고쳐서 겨우 왔다고 보고하자."

그들은 서로 합의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 월요일의 반나절을 더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메

모지 한 장씩을 주시더군요.

그리고는 각각 네 사람이 붙여져서 펑크 난 자동차 타이어가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고 - 시편 101:7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권 목사
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웨신총회 부총회장

교회 표어 :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전도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0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중생 - 감절의 선교

담임목사 : 이재권
장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김영주, 오정순, 김성임, 박에스터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남서울중앙교회 42주년

창립42주년을 맞는 뜻깊은 기념(10월 20일)일이 다가오는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피종진 원로목사님, 담임 여찬근 목사님, 남서울중앙교회 모든성도님들께 진심으로 JTN방송(WWW.JTNTV.KR)과 자지스타임즈 전국 16개 지사 및 12개 해외 지국과 직원일동이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님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피종진 목사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성회 일정◆

- | | |
|--------------|---|
| 1(금)~2(토) | 일본(JAPAN) 나라타 겐켄신금식기도원(원장 김태실 목사) |
| 3(주일) 오후 | 성남 진성교회(이영자 목사) ☎(031)747-3350 |
| 3(주)~6(수) | 서울 우신교회(장기성 목사) ☎(02)2060-0091 |
| 4(월) 오후 7(목) | 부천 한국기독교목회자연수원(원장 이재범 목사) ☎(032)668-3191 |
| 오후 8(금)~9(토) | 서울 소망교회(안연애 목사) ☎(02)573-7797 |
| 11(월)~14(목) | 부산 JSTV 선교센터 위성방송성회(시장 이종문 목사) |
| 12(화) 오후 | 광명 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
| 12(화)~14(목)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총장 황승룡 목사) ☎ 010-4656-1192 |
| 15(금) 오전 | 서울 금보기도원(원장 노인자 목사) ☎(02)494-3853 |
| 17(주일) 오후 | 동서울성원교회(라계동 목사) ☎(02)456-9004 |
| 17(주일) 저녁 | 서울 국군교회(이상숙 목사) ☎ 010-8447-2715 |
| 18(월) 저녁 | 서울 상원교회(정경학 목사) ☎(02)848-8328 |
| 19(화) 저녁 | 안양 주만나교회(김재민 목사) ☎ 010-2425-8549 |
| | 대구영남정보연합성회(대화장 권형식 장로) |
| | 장소: 경주 대명리조트 대강당 ☎ 1588-4888 |
| 19(화) 철야 | 서울 안동교회(이성희 목사) ☎(02)763-7244 |
| 23(토) 오후 | 부천 은혜와사랑교회(정효신 목사) ☎ 010-9600-1617 |
| 24(주)~27(수) | 서울 반포성결교회(유정식 목사) ☎ 011-411-7601 |
| 25(월) 오후 |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장소: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
| 28(목) 오후 | 서울 소망교회(안연애 목사) ☎(02)573-7797 |
| 28(목) 저녁 | 부천 세계기독교선교센터(원장 민중만 목사) ☎(032)329-9182 |
| 29(금) 오후 | 한영신학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
| 29(금)~30(토) | 미국(U.S.A) 휴스턴한빛장로교회(노경각 목사) ☎(713)643-4348 |
| 31(주일) 오전 | 미국(U.S.A)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이재호 목사) ☎(281)752-0700 |

대한예수교
장로회

www.nsc.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 사 : (010-5255-7777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33@gmail.com

제자교회(정삼지 목사)는 “상소인들에게 친교를 구실로 집단행위 금지하라”

제자교회(정삼지 목사)의 공동의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작금의 혼란스러운 사태에 대해 ‘교인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포해

총회 재판국(국장 김영길 목사)은 하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심판 장로는 ‘면직·제명·축교’하고, 신현철·옥광호·박삼봉·이문노·김해표·임하규 장로는 ‘면직·축교’한다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한 상소인에 대해 권징조례 제9장 100조에 근거하여 승복하여 자정할 것을 지시 명령하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상소인들이 소원과 상소를 구실로 무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 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모든 청원을 중단 자제하고 당회나 노회에 서 시별한 형량을 승복할 것을 지시 명령했다.

또 재판국은 하서노회의 재판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히 상소인들에게 경고한 금지사항은, ‘친교를 구실로 집단행위, 교회 추방, 벌금, 옥상에서 유괴를 살포, 건물목에서 전단지 배포, 정삼지 목사 축구에서 배회 및 배웅행위를 절대 금지할 것’이었다. 이로서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하서노회의 애장 합동 총회가 제자교회의 정삼지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선교교장 구자화

장로가 선교헌금을 정삼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장을 교회가 관리하고, 또 계좌이체를 담당 장로가 직접 한 것으로 보아 다른 어떤 의도가 전혀 없음을 어리아이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이 지루이다. 그 예로, 면직출교 당한 장로들은 자신들의 교회 문제를, 그들이 속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집단행동을 하고, 불법유언을 배포하고, 외부 단체들을 끌어들이고, 급기야 사회법정에 담임목사를 고발하여 사회문제화한 것은 과거 불온세력들이나 하는 방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정삼지 목사는 일부 언론에 의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기도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이는 8월 22일 열린 제자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보여주 대다수 성도들의 사랑과 지지가 아니었다면 ‘하 인자’로서 ‘하 사람’의 목사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었을 것이다.

정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부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분들도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돌아오면 수감도 같이 일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폐쇄적인 그런 교회 아닙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흔들려는 것, 또한 목사의 목회권을 흔들려는, 그래서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그래서 총회도 우리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자교회 공동의회는 작금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정리하면서 ‘교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1. 본 교회 시무장로였던 심규창씨가 총회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담임목사님을 형사 고소한 행위는 교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것이므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교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 본 교회 시무장로였던 김해표, 박삼봉, 신현철, 심규창, 옥광호, 이문노, 임하규씨가 교회를 상



▲제자교회 전경

대로 소송을 하여 교회헌금 2000 만원을 가져간 행위는 파렴치한 짓으로 규탄하며 즉시 교회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위 2항의 7인파 정인섭, 정병일씨가 교회를 상대로 하루에 3,000만원씩, 교회헌금 15억을 가져갔다고 법원에 신청한 행위 또한 부당하므로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4. 본 교회 회계과장장부를 공개하거나 열람 당사 CD급기 사진촬영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제자교회 모든 교인들은 강력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최성관 기자

아름다운 금문도



서영웅 목사

생명은 어떤이든 사랑스러우며 귀엽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는 온가족이 기쁘고 사랑스럽다. 조기교육시대를 맞이해 너무나 자녀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교육은 어린이 때부터 사랑을 겸한 질서와 성품교육이 중요할 것 같다. 사랑은 채찍과 당근이 것이다. 성장과정이 중요하다. 정의와 진실이 있으면 성공되고 낙오되어 비뚤어지면 항상 법이라는 채찍이 주어지게 된다.

국가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다.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 모든 나라가 희망하며, 그러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다. 그러나 개인도 국가도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며,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찾아온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6~7조에 가까운 지원을 북한에

군 공수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해 바뻐했다는 것이다.

포도원에 낙하되면 즉시 전류로 인해 체포된다는 것이다. 만약 후 군용트럭으로 포도동산을 들어가 보니, 2차선 도로 등 위전하 요소로 장치하고, 중공군과의 유사시에는 3분 이내에 전쟁은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내용을 듣고 과연 거대한 중국이 조그마한 대만을 넘보지 못하는 것은 위전무결하게 무장한 아름다운 금문도

“교육은 훌륭한 인간성과 전문성을 가져다준다.

국가는 자국을 방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금문도를 만들어 유사시 즉각 초토화시키는 힘을 갖자.”

천안함 사건은 우리의 밝은 사회를 어두움으로 몰아넣었다. 지금까지도 온전한 사건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세계와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북한은 고개를 낮추지 않고 전면 무관하다고 하는 처사를 볼 때에 물어 나오는 심회를 새기지 못하겠다.

우리민족은 용서치 못할 큰

했다는데, 오히려 천안함 타격을 하려고 모략하다하며,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힘은 가진 자의 것이라 하지만 힘에 앞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건강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약20년 전 대민국에 초청을 받아 가족이 있다. 행정위 총리의 영접 인사말과 만찬을 같이 하였다. 약20여개국 60여명이 대민국의 국정보고를 들었다. 완전한 자주국방으로 물질없는 체제에 모두 감탄하였다.

다음날 대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문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공군기로 약시간17분 정도 도착하는데 타워형의 망망대에 섬에 삼전체가 포도원이었다. 안내원에게 문의하바 포도나무주자에 걸린 줄로 중공

때문이었다.

아름다움은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국방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골고루 형성되어야 한다. 아름다움은 자랑도 되고 패전도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젊음과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못해 안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으면 오히려 역연상이 오지 않겠는가? 정치는 국가의 힘을 재고시키는 것이다. 젊음과 힘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의연하고도 신성한 위정자들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아름다운 금문도를 바들었으면 좋겠다.

퓨리탄정보교회 목사 서영웅
본지 상임이사(퓨리탄신대원 학장

통대협 통일교 문선명집단 규탄대책회의 가져

통일교 노방전도 대책을 위한 용산구 지역 교구협의회 임원단 규탄대책회의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대표회장 최재우 목사, 이하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2010년 9월 28일(토) 아침 7시에 서울 카페탈 호텔 1층에서 통일교대책협의회 임원들, 통일교 노방전도 대책을 위한 용산구 지역 교구협의회 회장, 총무 및 임원들을 모시고 통일교 문선명 집단 규탄대책 회의를 가졌다.

1부 예배는 통대협 대표회장 최재우 목사 인도로 진행 되었으며 대표기도는 서부성결교회 이유구 목사가, 통일교 최근소식과 통일교 실체에 대해서 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가 강의했다.

2부 통일교 대책을 위한 회의는 기도, 토의, 폐회기도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폐회기도는 하강중앙

교회 원로 신신목 목사 기도로 마쳤다.

토의내용은

1. 용산구 지역 내에 교회들이 연합집회를 가지면서 기독교 성도들을 통일교 실체에 대해서 교육시키기로 결의하였다. 2. 용산구 내의 교회와 교회연합회가 모두 연합하여 통일교 1만 명을 목표로 노방전도(노란 옷, 노란모자에 통일교 마크새김)를 통해 집중 포교 활동 하고 있으니 기독교 성도들은 강력히 경계하여 대처하자. 3. 통대협에서 제공하는 자료(회보내용)로 기독교 성도들을 교육시켜 통일교로부터 피해를 미연에 방지시키자.

4. 통일교 관련단체 및 기업체 목록을 교회내에서 플레카드를 제작하여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통일



▲통일교적용용산구 대책협의회

교 제품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 교회게시판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이대사이비를 돕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 이영선
이영선 목사 간증초청 연락: 02-744-2422 / H/P 018-214-7720

남북이 성령의 불로 하나 되자!

백합교회 기도협의회 8. 15 축복 대성회



성경모 목사

백합교회 8. 15 기도협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 7052부대 기드온교회(김창제 목사)에서 “남북이 성령의 불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8. 15 축복 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나단 목사의 사회아래 가진 1부 예배는 배진구 목사(신안교회)의 대회사, 김창제 목사(기드온)의 환영사, 장사무엘 목사(북인천)의 취지문낭독, 최석우 목사(푸른성)의 대표기도, 성기현 병장(군종)의 성경봉독, 기드온교회 차양대의

찬양, 강순모 목사(군사예향)의 세소폰 찬양, 주, 김원철 목사(오산비금식기도원 원장)가 “민족이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강영준 목사(늘푸른)의 헌금기도, 늘푸른 찬양대의 찬양, 이부중 목사(차양의)가 나라와 민족을, 우충회 목사(삼성)가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조조복 목사(창녕)가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유성현 목사(사랑많은)가 한반도 세계평화를, 이정희 목사(백합)가 전 세계복을 화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김동성 목사(새 능력)의 사회아래 가진 2부는 고재유 목사(양

문)의 경축사, 이효은 목사(화정 총현) 최진석 목사(성북)의 축사, 변충진 목사(늘푸른)의 8.15 성령사 발표, 조성철 목사(빛과 진리)의 결의문, 김희준 목사(열린 축복)의 구호제창, 성경모 목사(백합)의 인사 및 광고, 홍대산 목사(시온의 첫사랑)의 만세삼창, 박금동 목사(비전소망)축도로 마쳤다.



▲백합교회 기도협의회 8. 15 축복 대성회

14일자 北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역사적인 당대표자대회와 당창건 65년이 다가오는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을 가장 존엄 높고 귀위 있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 있다’로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아버지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 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 발전시켜 온 성스러운 투쟁노선으로 빛나는 노동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참모부로 서 당의 강화발전예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의 전도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조선로동당을 세계가 우러르는 존엄 높고 귀위 있는 위대한 당으로,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 발전시킨 김정일의 업적은 영위불멸 할 것이라며, 김정일의 당 건설업적은 ‘위대한 [김일성]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북한 김정은

투쟁하는 불패의 당으로 만드신 데 있다’고 강조 했다.

김정일은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적순결체로 만드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을 강화 발전시켜온 김정일의 영도는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세기적 모범을 창조하며 백승을 펼쳐올 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었다고 김정일 업적을 내세웠다.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풍모를 그대로 닮은 우리 당은 불가능을 모르는 전투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 불패의 당으로 끝없이 위용을 펼칠 것이라며,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사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특특히 무장하며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당의 유일적령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끝맺었다.

이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한 ‘유일체제’를 김정은에 의한 3대 세습의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북 주민은 물론 당,군,정 각부나 당지도부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이자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3대 세습체제에 승복하지 못하는 북 내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폭발할 지는 예측불허라고 할 것이며, 김정은에 의한 3대 세습지도자체가 북의 멸망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다만 코흘리개 3대 수령 김정은을 (싫어도 마지못해) 경배해야 할 남쪽 빨갱이들의 처지가 딱할 뿐이다.

소진우 목사 “라이즈월드 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취임가져

라이즈월드 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소진우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 할 것이며, 내년 2월 구정 때와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을 돌며 낮에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고 저녁에는 유동장에서 선교 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즈월드(Arise World Mission)선교협의회 대표총재,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9월 12일(주일)오후 7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등위사랑 의교회(이주훈 목사)에서 드려졌다. 무화위장 전아 목사 사회로 1부 취임식이 진행되어 연수위원장 김세현 목사가 기도를, 본부장 이상호 목사가 조직을 발표하고, 이주훈 목사(등위사랑의교회 담임)의 대표총재 취임사가 있었다.

이어 대표회장 소진우 목사(서울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사장)가 취임사를 통해 하 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본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 소 목사는 이날 본 선교협의회 회원들과 선교 의 열정을 가진 목사들로 구성

된 선교단체라고 말하고, 년 1-2회 정도 외국 선교를 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피력했다.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진 목회자들이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2011년 2월 구정을 기해서 캄보디아로 건너가 낮에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고 저녁에는 유동장에서 선교 대 집회를 가질 것이며, 그 해 11월은 필리핀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했다.

대표회장 소진우 목사는 대표총재 이주훈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선교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

면서 우리 라이즈월드선교협의 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 하고 열정 넘치는 선교사역을 다짐하면서 취임사를 했다.

이어 대표회장 소진우 목사, 대표총재 이주훈 목사는 서로 취임축하패를 교환증정하고 회원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으며 “축하가 머무는 자리”정세연 자매의 축하와 본부장 이상호 목사가 광고를, 대표총재 이주훈 목사가 축사로 마쳤다.

2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영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오사 리기노위 김원철 목사가 “부흥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소진우 목사 축사로 마쳤다.



▲“라이즈월드 선교협의회”대표회장 소진우 목사(중)

▲“라이즈월드 선교협의회”대표회장 소진우 목사(중)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제75차 육운식 목사 회장 추대

부회장 이수영 목사 임헌근 장로 추대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

그리스도 의교회협의회 제75차 정총이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소재 예수 사랑교회(이강평 목사)에서 27(월)~28(화)까지 개최됐다.

“전진, 그리스도의 교회(빌 3:13~14)” 주제로 열린 총회는 27일 오후 4시 경이지방회장 전장원 목사 사회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부총회장 이강평 목사가 기도를, 장로협의회 임원일동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회장 이강평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협의회장 이강평 목사는 개척교회 설립자 39인에게 격려패, 신임지방회장 8인에게 축하패, 특별공로패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증경회장 김종만 목사 축사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 저녁 7시30분 정총이 개회되어 제75차 임후보자가 소개되



었으며, 심 임회장과 임 위 등을 선 출 추대되었 다.

회장 육운식 목사(충남 제 일 교회), 부회장 이수영 목사(신성교회), 임헌근 장로(신탄진 교회),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수원교회), 협력총무 엄미동 목사(성광교회), 주경림 목사(해남교회), 김상영 목사(임마누엘교회), 임종원 목사(명무교회), 서기 신동식 목사(성동교회), (부)김택원 목사(대전교회), 회의록서기 정경림 목사(계곡교회), (부)오홍근 목사(제원교회), 회계 김용강 목사(청주중앙교회) 부서기 강보식 목사(유광교회), 감사 오광은 목사(금성교회), 공창호 장로(임마누엘) 등이 제75회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회원들과 임후보자를 위하



▲총회를 마친 후 단체사진

여 사역하 다.

이날 신 임회장 육운식 목사는 본 협의 회가 선후 배 및 성도

님들의 축 제의 장이 되기를 바 람다면서

지금까지 그

리스도의 교회는 유능한 이강평 목사님을 회장으로 모시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별히 그 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의 대내외 적으로 많은 도약의 기회였고, 합

계 고민하고 꿈꿔왔던 임원이 조 금씩 진척됨을 감사했다.

또 육 목사는 그동안 부회장을 수차례 역임하면서 이전 임원들

과 함께 그리스도의 계획을 꿈꿔 왔던 비전에 하나 더 다가가기 위 하여 금년 회장후보로 임후보하 게 되었다고 말했다.



▲총회를 마친 후 단체사진

가을 바람 속에서

가을바람에 눈물이 나거든
세상이 그 만큼 넓다 생각하리라

세상이 넓다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슬프기도 한 것

그러나 세상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면
어슬픈 내 몸짓도 아름다움이 된다네

살 속을 파고드는 바닷바람도
아침에 붉게 뜨는 해를 이야기 하듯

삶이 그렇게 아름다움이 되는 것은
내 삶속에 네가 있기 때문이네

네가 있어 모두가 좋은 나는 바보
바보가 바보로 살수 있는 세상이란 좋다

이 대통령 내외, 대한민국 나눔문화대축제 참관

이명박 대
통령과 김윤
옥 여사는
18일(토) 나
눔문화 확산
을 위해 상
암월드컵경
기장에서 개
최된 제1회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
축제 행사장을 참관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와 나눔이 있는 따뜻한 점심, '나눔 대한민국 만들기 부스', '사회공헌기업 부스' 등 다채로운 나눔 행사에서 기업의 사회 활동 참여, 새로운 나눔활동 참여방식에 대 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이 대통령 내외는 현장을 찾은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드라 마 제행왕 김탁기 출연진, 일부 시민들과 함께 목거노이에게 전달

할 추석 송편을 빙고, 스마트폰 기부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새로 운 기부방법을 체험했다.

이에 앞서 기부자, 자원봉사자, 사회공헌 기업 대표자 등 220명이 참석하 오찬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기부·자 원봉사 등의 나눔활동이 나눔문화 로서 확산되도록 민가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소진우 목사 2010년 성회일정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1월

- 4~7 도곡산 기도원 (양재자 원장)
- 10 대광교회(오봉석 목사),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11~13 마가의다락방 (박보영 원장)
- 17 경향교회(석기현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18~20 신광교회 (조호원 목사)
- 24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25~27 신일교회 (최세걸 목사)
- 29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10년 2월

- 1~3 한성교회 (천복수 목사)
- 7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8~10 독산교회 (김의태 목사)
- 10 성마음교회 (권동희 목사)
- 15~19 선교지방문
- 21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22~24 평택중앙교회 (김옥복 목사)

2010년 3월

- 봄철축복대신방
- 7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21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26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 28 동서울성현교회(라계동 목사)
- 29~1 갈멜산기도원(강화)(임예제 원장)

2010년 4월

- 5~7 도원교회 (유순기 목사)
- 12~13 정기노회
- 13~15 효진교회 (이영주 목사)
- 18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19~21 이레교회 (황송주 목사)
- 21 통영기독교연합교회 (미수교회)
- 26~30 선교지방문(열선협)

2010년 5월

- 3 원당소망교회 (김영호 목사)
- 9 성문교회 (이종래 목사)
- 10~12 새암교회 (김병식 목사)
- 16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17~20 광은기도원 (김한대 원장)
- 20 갈멜산 기도원(임예제 원장)
- 23~26 미쁜교회 (이봉현 목사)

2010년 6월

- 31~3 진주기도원 (김진홍 원장)
- 6~10 라계동목사초청부흥성회
- 8 성소기도원 (박정연 원장)
- 13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14~16 열방교회 (신보현 목사)
- 18 일신금관교회 (주성민 목사)
- 21~24 갈멜산기도원 (이옥란 원장)
- 25 한일산기도원 (이영균 원장)
- 28~30 풍성한말교회 (이수관 목사)

2010년 7월

- 5~7 에스라선교센터 (이진희 원장)
- 11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12~16 신학생 여름특별세미나
- 19~22 에바다응답기도원 (최민숙 원장)
- 23 21세기 성령화 운동본부 연합집회 (노배드로 목사)
-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010년 8월

- 2~5 수도산기도원 (이영이 원장)
- 8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9~11 성산수양관 (윤호균 원장)
- 16~18 경성교회 (이정근 목사)
- 23~25 진접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 26 양평금식기도원 (임기호 원장)
- 26~27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 30~9.1 푸른초창교회 (김용철 목사)

2010년 9월

- 5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6~8 퇴계원장로교회 (김동권 목사)
- 13~16 교단총회
- 15 정동교회 (백현기 목사)
- 20~24 인도선교집회(맹갈로)
- 26~28 성산성결교회 (안성기 목사)

2010년 10월

- 3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4~6 서북교회 (배경락 목사)
- 11~12 정기노회
- 12~14 은원기도원 (조은 원장)
- 17~20 동서울 성현교회 (라계동 목사)
- 25~27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
- 31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2010년 11월

- 1~3 신천장로교회 (강영규 목사)
- 8~10 경천교회 (이원경 목사)
- 15~17 수원평안교회 (김관우 목사)
- 22~24 대흥교회(정남기 목사)
- 28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29~2 몽골할렐루야 (전웅 선교사)

2010년 12월

- 6~8 예수비전교회 (김승업 목사)
- 13~15 세영교회 (이영근 목사)
- 20~22 청남교회 (조성민 목사)
- 26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 27~29 논곡제일교회 (손동원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